

문화의 터밭 일구는 다양한 쟁기질

지역출판운동의 현장 ③ - 大邱

얼핏 보기에 대구는 그 도시의 성격이 참 밋밋하다는 인상을 준다. 여행자가 낯선 지방에서 흔히 느끼게 되는 가벼운 흥분이나 들뜬 기대감 같은 것을 제공하는 데 대구는 비교적 인색한 편이다. 일종의 산문적인 무덤덤함이 라고나 할까, 여하튼 대구에는 독특한 개성과 분출하는 활기가 빛어내는 어떤 드라마가 없어 보인다. 그런 만큼 도시의 표정을 읽어내기가 또한 어렵다.

그러나, 한 도시의 무표정이 곧바로 그 도시의 침체상을 드러내는 징후로 번역될 수는 결코 없다. 그것은, 경남권과는 또다른 대구 사투리 특유의 질박함처럼, 그 깊은 속내를 안으로 쟁여두고 짐짓 그레보는 것일 수도 있다.

대구출판도 이와 같다. 딱이 이것이다 싶게 내세울 만한 특성은 없지만, 겉으로 떠들썩하지 않은 가운데 비교적 고른 수준의 책들이 다양한 층위를 이루며 출판되고 있다. 물론, 대구출판이라 해서 지방출판사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본의 영세성이라든지 필진 확보의 어려움, 영업조직의 미비 등으로 시달리기는 매한가지이다. 다만, 이런 어려움에 맞서 지역 문화의 터밭을 일구는 대구 출판인들의 노력이 묵묵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수행되면서 나름대로 그 성과가 집적되고 있다.

“전위는 있는데 본대와 후위가 없다”

현재 대구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출판사는 지난해 말 등록개방 이후 새로 생긴 33개사를 포함, 모두 1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질적인 출판활동을 벌이는 곳은 10개사 미만에 불과한 형편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인쇄업과 출판업이 미분화된, 다른 지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출판의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예컨대, 대구매일신문사 건너편에서 서문시장쪽으로 빠지는 동산동 일대에 밀집한 사진식자집들이 건물 외벽에 ‘전산사식’ ‘칼라인쇄’ ‘코팅’ 등과 함께 ‘도서출판’을 취급 업종으로 광고하고 있는 사실이 그 좋은 보기가 된다.

이들 인쇄겸업 출판사들은 1년에 한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는 무실적 출판사거나, 혹은 내더라도 아이들 수련장이나 단어장 같은 학

습참고서와 부교재류를 퍼내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대구출판의 경우, 전위는 있는데 본대와 후위는 없다”는 한 출판인의 표현은 적절하다. 대구출판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몇몇 출판사의 활동이 곧 대구출판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대구출판의 전위로서 본대와 후위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출판사가 흐름사, 대일, 그루, 以文출판사, 물레출판사 등이다. 이중 물레출판사가 최근 경영악화로 출판활동이 주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100종 이상씩의 일방단행본을 퍼내는 등 건실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1979년에 창립, 시인 金鍾潤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흐름사는 문학도서를 주력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허생의 살구나무」(이문길), 「송사리떼를 몰고 하늘로 가는」(김용락), 「70년대시선집」(감태준 외) 등의 시집을 비롯해, 「밀도살꾼」(박희대) 등의 소설집, 「가꾸며 생각하며」 등의 교수 수필집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모두 150여종의 문학도서를 펴냈다. 아울러 「낙강」 「대구문학」 등의 동인지 및 지역문예지도도 꾸준히 펴내고 있다.

한때 경영악화로 출판사가 존폐의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적이 있었다고 전하는 김종운 사장은 그런 경험 때문인지 판매망의 확대가 지방출판사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사장은 현재로서 지방출판사는 상업적 가능성보다 문화적 사명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지적한다.

“지방출판의 상업적 가능성은 문화적 사명감을 계속 실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댄다는 의미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돈 벌려고 들자면 굳이 출판을 할 까닭이 없죠. 다만, 재고장의 지적 생산을 출판이란 그릇에 담아냄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지방출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출판으로 얻은 이익 기획출판에 轉用

도서출판 ‘대일’ 역시 문학도서를 주로 출판하고 있는데, 1982년 등록 이후 지금까지 자비출판을 포함하여 100종 남짓한 책을 펴냈다. 「이승의 옷」(박하식), 「신동집시연구」(채수영) 같은 소설집이나 연구서도 간간이



대구지역에서 출판된 도서들. 문학서가 주종을 이루며, 교재출판도 강세를 보인다.

출판하고 있지만, 기획상품으로 특히 아동도서에 주력하고 있다. 시리즈물로 ‘아동문학선’을 5권까지 출간했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아동문학전집 간행을 준비하고 있다. 대략 2~30권 분량이 되리라는 것이 대표 張昊炳씨의 말인데, 동화 및 동시작품을 주제나 소재별로 엮어낼 예정이다. 그러나, 준비만 해놓고 선뜻 출판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판매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1984년 아동문학무크지로 펴내기 시작했던 「소년과 소녀」가 지난해 8호만에 중단된 경험도 있고 해서, 장호병씨는 지방출판의 가능성이 구현되기 위해 특히 출판유통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고 중앙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편성된 유통구조에 지방의 군소출판사가 끼어들 틈이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총판 위주의 도서유통은 하루속히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구나 부산 같은 데서 지역단위의 유통조합이 결성되고 그것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형성한다면 지방출판의 활성화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상의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는 도서출판 ‘그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83년 등록 때부터 일련의 기획출판으로 승부를 걸었다가 실패를 보고 이듬해부터는 자비출판 대행을 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학 및 교육학 관계도서 120여종을 펴냈다. 「세월의 징검다리」(김상열), 「별들의 말」

(여영택) 등의 ‘그루시선’, 「유적지를 나서며」(윤성근), 「상복을 입은 시집」(장정일), 「길들의 여행」(조기현) 등의 ‘그루젊은시인선’, 그리고 「교육최면학」(여영택), 「성인교육론」(권영완) 등 교육학저서로 구성된 ‘그루신서’가 대표적이며, 그밖에 ‘수필선’과 ‘소설선’도 연속간행하고 있다.

“좀 나아질까 해서 제 이름까지 바꿔보았습니다.”라고 털어놓는 대표 이병수씨는 영업조직의 미비를 대구출판의 전반적인 취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이 영업직원의 인건비에도 못미치기 일쑤죠. 그러다보니 영업직원을 따로 쓸 엄두도 못내고 그저 서점의 처분만 바랄 뿐인데, 그게 저희 희망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구석에 꽂혀 있다가 서너달 지나면 파본이다 뭐다 해서 반품이나 되고 맙니다.”

결국,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은 채 서점판매에 의존한다는 일의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출판사들도 사실은 간행중수의 절반 이상을 자비출판이 차지하는 형편이다. 이병수씨의 말대로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출판사의 보람”이라고 할 때 책의 보급을 출판을 의뢰한 개인의 연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비출판대행은 ‘슬픈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자비출판을 무시하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대구출판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자

비출판으로 얻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이익을 성패가 불확실한 기획출판에 전용한다는 점에서 대구출판인들의 노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진 거름이 되고 있다.

전국적 명성 얻은 출판사도

흐름사, 대일, 그루가 문학도서를 주종으로 펴내고 있는데 반해, 以文출판사는 일련의 대학교재류를 포함하여 종교 및 철학도서 출판에 치중하고 있다. 1980년 등록 이후 지금까지 100종 남짓한 책을 펴내고 있는데, 특히 출판사 안에 현대종교문제연구소를 설치해 이 연구소의 연간지로 「현대와 종교」를 11집까지 펴내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서양철학사」(강성희), 「젊은이들을 위한 철학」(정희채), 「花郎哀史」(김범부), 「문학과 종교」(이효상) 등이 이문출판사가 자랑하는 대표적 출판물들이다. 대구지역의 일반 단행본 출판사로는 드물게 서울사무소를 따로 개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판의 무게중심이 대구 쪽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 회사 배금순 씨의 말이다.

한편, 대구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출판사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고 있는 곳으로는 형설출판사, 학문사, 분도출판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대학교재출판의 명문사로 손꼽히는 형설출판사는 대구라는 지역성이 희석된 지 이미 오래고, 지명도는 좀 덜하지만 역시 대학교재 전문출판사로서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는 학문사의 경우는 그 역사나 규모에서 대구지역 유일의 대형출판사라고 할 만하다. 1963년 등록 이후 25년 동안 수백종의 교재류를 펴냈고, 서울사무소 말고도 대구 삼덕국민학교 근처에 5층짜리 사옥을 갖고 있다.

분도출판사 역시 신학 및 일반교양도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으로, 대구 인근의 칠곡군 왜관읍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밖에도 正華社, 대영문화사, 東知社, 송원문화사, 금강사 등이 사전 및 학습참고서, 그리고 약간의 교양도서를 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체 출판량은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 같은 출판사의 수적 열세와 몇몇 출판사에만 국한된 출판역량의 편중현상에도 불구하고, 대구출판의 저변

과 가능성은 비교적 넓고 높다는 것이 이 지역 지식인들의 말이다. 우선, 戰時의 특수성 탓도 컸겠지만 한국전쟁 당시 판매의 중심지였던 부산과 더불어 대구가 제작의 중심지로 출판활동이 크게 성행했고, 出協史上 유일한 지부가 대구에 설치됐던 점 등을 들어 대구출판의 질긴 뿌리를 확인하고 높은 가능성을 짐친다.

또한, 필자의 가동능력에서도 대구는 비교적 유리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시단의 활기는 주목할 만한데, 이런 활기가 책을 통해 제대로 반영될 때 대구출판의 활성화는 먼 앞날의 일만은 아니다. 지역문예지 「우리시대의 젊은 시인들」을 주재하고 있는 시인 徐芝月씨의 말에 따르면, “지역의 유능한 필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출판사의 노력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제 고장의 출판활동에 참여하는 필자들의 노력이 한데 맞물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때” 대구출판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해말 이후 새로 등록된 출판사들이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斑村文化연구에 관목할 성과

— 대구지역 대학출판부들

대구지역의 출판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일반출판사의 그것들 능가하는 활동을 보이는 것이 일련의 대학출판부들이다. 현재 대구지역에 소재한 대학들로 출판부를 두고 있는 곳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효성여대 등인데, 이 가운데 영남대와 계명대 출판부의 활동이 특히 주목을 끈다.

영남대는 국학, 그 중에서도 영남일원의 斑村문화에 대한 연구서를 다수 펴내 「민속」 혹은 「민중」에 치중되고 있는 이즈음의 추세에 비추어 크게 돋보인다. 「嶺南士林派의 형성」(이수건), 「영남지방 固有聚落의 공간구조」(이종필 외), 「경북지방 古文書集成」(이수건), 「韓國文集解題-영남편」(민족문화연구소),

대구출판의 현단계는 아직까지

'출판운동'의 집약성이나 '출판문화'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대구출판을 선도하는

몇몇 출판사들이 지역문화의 터밭을

일구는 데 희생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옅은 저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양한 층위의

출판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嶺南鄉約資料集成」(오세창 외) 등이 대표적인 역저로 꼽히며, 반촌문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慶北東海岸方言연구」(최명옥) 「新羅上代王位繼承연구」(이종욱), 「月城地域語의 音韻論」(최명옥) 「大邱藥令市論」(권병탁 외) 등도 지역문화의 폭과 깊이를 더한 저작으로 평가된다.

그밖에도 영남대 출판부에서는 '민족문화연구총서' '민족문화자료총서' 등의 시리즈를 통해 일반출판사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묵직한 학술도서를 연이어 펴내고 있는데, 출판부장 金相式교수는 “민족문화연구소 같은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결과와 출판부의 활동이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점이 영남대 출판부의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최근에는 인문과학연구소와 협의, '인문과학연구총서'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한다. 영남대 출판부에서는 따로 20여종의 '天馬文庫'를 펴내고 있기도 하다.

계명대 출판부는 영남대와는 달리, 총서류보다는 단발물 저작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출판부의 정상도씨에 따르면 정밀한 아이템으로 짜여진 덩치 큰 시리즈물을 제작하는 데 따르는 광범한 필진의 동원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190여종의 책을 펴내 그 가운데 150여종이 시중유통되고 있는데, 의학분야의 역작으로 꼽히는 「성형외과학」(강진성 외)을 비롯, 「敍事民謠연구」(조동일), 「史料 美國史」(정만득), 「國語音韻의 通時的 연구」(오종갑), 「朝鮮巫俗의 現地연구」(최길성) 등이 대표적이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경제론」(이말남)을 펴내 학계와

매스컴의 주목을 끌고 있다. 총서류로는 동서문화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모은 '비교문학총서'가 5권까지 나왔다. 계명대 출판부의 경우, 재단산하에 경북인쇄소가 따로 대구시내에 설치돼 있어 비교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대구대, 효성여대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개론서 등 교재출판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역출판에의 기여도나 자극은 미미한 편이다. 경북대가 교재류 외에 「한국인의 정치사회意識」(정철수), 「國語語彙史 연구」(전재호), 「新羅史 연구」(문경현) 등 약간의 전공학술도서를, 효성여대는 歲德歌와 戒女歌로 이름높은 경북지역의 문학적 전통에 걸맞게 「閨房歌辭」(권영철) 등을 출판했을 뿐이다. 대구대 출판부의 경우는 일련의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계도서를 중점적으로 펴내고 있어 노인 및 장애자 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읽을 수 있게 한다.

—강철주 기자

출판저널을 선물로 하세요.

◆ 책과 독자를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 「출판저널」을 가까이 하세요. ◆ 보내드릴분의 주소, 성함을 명기하시고 구독료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 보내는분의 성함을 받습니다. ◆ 본분에게 매호 알려드립니다.

☎ 732-1431~3